

'95년도 에너지資源政策方向

유 창 무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장

1. 序論

'95년의 에너지자원정책 樹立과 관련된 國內外 與件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석유시장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및 OPEC국가의 생산억제에도 불구하고 비OPEC 산유국의 공급량 증가로 '94년과 마찬가지로 安定勢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에너지수급상황은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전력의 경우 發電所 건설이 급속한 需要增加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別途 對策을 수립하지 않으면 豫備率이 適正수준인 12%보다 훨씬 낮은 3% 이하로 하락하여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에너지수요는 7% 정도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消費構造면에서는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선호경향이 가속화되어 석유, 전력, 가스 등 고급 에너지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인 무연탄비중은 계속 낮아질 전망이며 그에 따라 에너지의 輸入依存度는 더욱 深化되고 수입액도 증가될 것이다.

또한 氣候變化協約이 '94년 3월 發效된 것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環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한편 WTO 出帆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保護

와 規制속에 국내활동에 주력하던 국내 에너지자원산업에 대해서도 自律化, 開放化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 에너지자원의 政策方向을 전력수급안정 등 에너지의 需給安定 圖謀에 역점을 두는 한편 世界化 元年인 '95년을 맞이하여 에너지자원산업의 世界化를 적극 추진하고 작년에 발생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들이 에너지를 마음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安全管理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93년 이후 둔화되었으나 아직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에너지소비증가율을 완화시키기 위해 에너지消費節約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및 環境保全을 위해 에너지부문에서 環境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며 국내 賦存資源의 개발도 활발히 추진하여 에너지자원의 自給率을 장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2. 에너지의 需給安定 圖謀

가. 電力需給安定 노력 강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전력수급은 상당

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보다 약 2백만kW 증가한 2875만 7천kW로 예상되는 반면 發電設備은 3104만6천 kW로 예비율이 3%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정부는 여러 가지 需給安定對策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부족한 發電設備을 擴充하기 위해 현재 계획중인 발전소 7기(230만kW)를 차질없이 건설하는 동시에 추가로 울산복합화력 등 2기(50만kW)를 건설하는 한편 '97년 준공예정인 분당 복합발전소(24만kW)를 금년 6월에 早期 竣工함으로써 여름철의 전력공급능력을 작년보다 304만kW 증가한 3178만6천kW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발전설비를 이렇게 확충하여도 전력예비율은 적정수준보다 낮은 5~6%에 지나지 않아 적극적인 需要管理로 전력수급에 안정을 가해 나가고자 한다.

電氣料金の 수요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은 시기인 7~8월과 낮시간대(10~12시, 14~17시)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월 200kWh를 초과 사용하는 電氣多消費需用家の 요금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금구조를 개편하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여름철에 집단휴가 및 공장보수를 시행하거나 냉방기 가동을 억제하여 自律的으로 수요를 줄일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한편 빙축열, 가스냉방 등 電氣代替냉방기기의 보급이 증대될 수 있도록 1대당 자금지원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발전소 不時故障이나 작년처럼 이상고온이 발생하는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비자와 事前契約에 의해 전기사용을 조절하는 『需給調整料金制度』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節電弘報對策機構』를 조기에 구성하여 범국민적인 절전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기적인 전력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현행 『長期電力需給計劃』의 계획기간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延長, 조정하여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

한 발전소의 適期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94년에 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原電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으로 주민의 이해를 적극 구하여 계속적인 增設이 불가피한 원자력발전소의 신규立地 2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나. 석유·가스의 需給安定 圖謀

석유는 국제시장의 안정세를 활용하여 안정공급기반을 더욱 다져나가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全國 供給擴大事業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유도입을 위해 長期契約比率를 60% 이상 유지하면서 現物市場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도입선 다변화지원을 당분간 지속함으로써 77%에 달하고 있는 중동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공급설비도 계속적인 수요증가 추세에 맞추어 확충해 나갈 것이다. 石油精劑시설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 重質油 分解施設 및 脫黃 시설도 계속 증설토록 유도하며, 원활한 석유수송을 위해 현재 건설중인 장거리送油管은 기완공된 여천·온산 ↔ 대전 구간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건설해 나가며, 현재 진행중인 제 2차 政府備蓄 확대계획에 의한 비축기지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94년말 현재 4개 기지에 4200만 B를 저장할 수 있는 원유 및 제품의 비축기지를 '98년까지 8개 기지 8900만B의 저장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 2차 비축계획이 완료되는 '98년에도 정부비축목표인 60일분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제 3차 비축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입지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천연가스는 그 편리성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2000년까지의 소요물량중 아직

확보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供給先을 確定하는 한편 현재 수도권 및 충청지역에만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를 전국에 확대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평택인수기지의 확장과 인천인수기지의 신설을 추진하고, 영호남지역에 대한 主配管건설을 완공하여 금년도에 이리, 전주, 광주, 구미, 대구 등에 그리고 내년에 부산에 공급을 개시하며 또한 주배관과 인접하고 있는 중·소도시인 온양, 군산, 목포, 포항 등에도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지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겨울에 수요가 많고 여름에 수요가 적은 천연가스의 需給不均衡 및 계절별 수요격차 완화를 위해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여름철 가스냉방의 보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LNG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수요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LPG에 대하여는 현재 2001년까지의 長期需給計劃을 2006년까지 연장하여 조정하며 전량 외국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LPG 수송선의 國籍船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평택, 인천 등 수도권 2개 지역에 LPG 輸入基地를 건설함으로써 LPG의 안정공급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3. 에너지資源産業의 世界化 戰略 推進

無限競爭과 開放化 추세에 따른 국내 에너지자원산업의 世界化 戰略은 다음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첫째는 정부의 規制와 保護를 점차 견어내고 競爭體制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자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둘째는 그동안 국내 활동에 주력하던 국내 업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海外에 진출토록 장려·지원할 계획이다.

가. 에너지자원산업의 競爭力 提高 노력 강화

(1) 석유산업의 自由化 추진

그동안은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정유업, 판매업 등에 대한 新規進入을 制限하는 등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등에 직접 개입하여 왔으나 開放化에 따른 대응방안의 하나로 '94년 1월부터 국내유가를 국제유가 및 환율에 連動시키는 『油價連動制』를 실시하는 등 석유산업의 自由化를 추진중이다.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油價自由化나 석유정제 및 유통부문의 자유로운 신규진입 등 석유산업 自由化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금년에는 기반 조성을 위해 석유사업법 등 關係法令을 改正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油價연동제를 순조롭게 정착시켜 유가자유화 실시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석유대리점을 대형화하고 유통단계별로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石油流通構造의 合理化를 추진함으로써 석유유통산업의 對外競爭力을 제고하는 한편 석유정보망을 확충하여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정보체제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석유산업의 자유화와 함께 국내 석유산업의 단계적 對外開放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은 국내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 미약과 資源安保障 측면을 고려하여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대외개방을 유보해 왔으나 최근 開放化 물결과 함께 석유정제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50%까지 허용하는 등 대외개방을 추진중이다. 향후 국내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고려하여 영향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는 기본방침하에 금년에는 우선 석유일반판매소(부판점) 및 LPG 판매소업을 개방하고 주유소 등 주요 석유유통업과 석유정제업에 대해서는 석유산업자유화 실시 1~2년후에 개방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 가스産業의 效率性 提高

한국가스공사는 '93.12월 政府投資機關 經營評價委員會에서 民營化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민영화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당초 작년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요청이 있어 금년 7월말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본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민영화의 구체적 추진방안과 추진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3) 電力産業의 競爭基盤 造成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거의 韓電이 독점수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목적댐수력발전과 소수력 등 발전사업에만 일부 민간기업이 참여중에 있다. '94년말 현재 국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水資源公社를 포함하여 17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용량은 국내 총발전설비(2876만2천kW)의 4.6%인 132만1천kW에 불과하며, 이중 순수한 민자발전은 '72.2.21일 상업운전을 개시한 한화에너지(32만5천kW)뿐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競爭을 促進하고 立地, 자금난 등 전원개발사업의 제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에 민간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93년에 수립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 LNG 및 유연탄 발전소 각 2기를 民資대상발전소로 선정·공고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民資發電의 인허가기준, 사업자선정기준 및 한전의 구입요금 결정방식 등 구체적인 『民資發電業務指針』을 수립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후 연내에 참여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며 또한 '95長期電力需給計劃 수립시에 民資對象發電所를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나. 국내 에너지자원산업의 海外進出 支援

(1) 海外資源開發事業의 적극 지원

'95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25개국에서 64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開發鑛種은 석유 등 14개에 이르고 있다. 석유의 경우 인니, 호주, 이집트 등에서 24개 사업을 수행중이며 유연탄은

호주, 인니 등 5개국에서 13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현실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海外資源開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계속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企業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 개정시 반영된 해외자원개발사업許可制의 申告制 전환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유전개발단계에 참여하는 민간회사에 대해서도 유개공과 같이 생산시설 설치비에 대해 용자 지원하며, 일반광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출 심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30억원 미만의 경우 대출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에너지원인 석유·가스의 自主供給能力을 提高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야쿠트가스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완료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經濟性이 확인되면 精密妥當性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베트남 11-2 광구 및 앙골라 2-92 광구 등에 대해서도 탐사사업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2) 電力産業 등의 海外進出 支援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우리 전력산업의 經驗과 축적된 技術을 活用하여 작년부턴 전력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는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제국의 電源開發事業에 적극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을 보면 중국 광동원전 기술용역사업을 비롯하여 중국 연길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사업, 필리핀에 디젤 발전기 이설·운영사업 및 필리핀 말라야 화력 재가동 운영사업 등이 있다. 금년에는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전 등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作業班을 구성하여 사업별, 국가별 推進戰略을 수립·추진하고 원자력발전분야를 한·중산업협력위원회의 제5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중국과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의 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을 석탄 등 資源 輸入과 連繫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국에 精油工場 合作建設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유업체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지역난방사업의 건설·운영으로 국제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地域煖房公社가 추진중인 중국 청도시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합작진출 등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深海低 鑛物資源 개발사업 추진

태평양 심해저에는 망간·코발트·니켈 등 尖端 産業의 재료로 이용되는 희유금속이 함유된 망간 단괴라는 광물덩어리가 많이 부존되어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개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1년부터 3단계 開發戰略을 수립하여 개발을 추진중인 바, 작년 8월에는 유엔으로부터 그동안 개발투자 실적을 인정받아 先行投資家 자격을 획득하여 태평양 C-C 해역에 우리나라 단독광구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정밀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현재 진행중인 精密探查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推進體制를 구성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4. 에너지消費節約 추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90년대 들어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에너지소비절약 施策의 효과로 '93년부터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낮아지는 등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에너지소비의 GNP탄성치(에너지소비증가율/경제성장률)가 1보다 커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정부는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가. 에너지節約型 産業體制의 구축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의 반 이상이 산업부문이므로 에너지소비절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산업체의 에너지소비절약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52%를 사용하고 있는 194개 에너지多消費사업장에 대해 '92년부터 '96년까지 절약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바 금년에는 총 3470억원의 투자 유도로 에너지原單位를 1.9% 개선하며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熱併合發電을 산업체에 확대 보급하고 400개 기업에 대한 에너지節約診斷과 375개 기업에 대한 事後管理를 통해 체계적인 소비절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나. 輸送 및 建物, 住宅 部門의 에너지절약노력 강화

급속도로 늘어나는 차량보급으로 수송부문에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部 차원에서 輸送部門의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에는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熱比측정을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승용차의 연비향상을 유도하고 저공해 경량차 개발에 연구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건물·주택部門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건축물에 대해서도 산업체와 같이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달성토록 하는 『目標 에너지原單位制度』를 도입하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節約設計基準』을 보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승용차, 냉장고, 소형 에어컨 등에 실시하고 있는 效率等級標示制를 대형 에어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 集團에너지 供給의 확대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地域煖房과 工業團地에

대한 熱併合發電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廣域地域暖房體制를 구축하고 대구, 청주, 양산, 김해 등 지방도시에 대해서도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하여 공급호수를 작년의 41만호에서 금년도에 60만호로 늘려나가며 현재 9개 공업단지 에 보급되어 있는 열병합발전을 1개소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라.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및 市場化 促進

앞으로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이 중요하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기술개발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가 協同하여 추진하는 技術開發 188개 과제에 대해 2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新技術이나 신제품의 초기 시장수요를 創出하여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뒷받침하고 기술개발속도를 加速化하기 위해 26mm 환경의 신조명 제품에 대한 시범보급사업을 확대하며 신기술제품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 에너지절약 推進基盤의 擴充

『新경제』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93~'97)을 10개년 이상의 長期計劃으로 連動化하여 장기적인 에너지절약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작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도입된 에너지공급사에 대한 『需要管理投資計劃』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전기, 가스 등 고급에너지소비의 급증 추세에 따른 공급설비투자 및 입지확보상의 애로를 경감하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는 化石燃料 사용규제 가능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사의 소비절약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도입된 것으로,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70년대말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각국에 擴散되는 추세에 있다. 실시 첫해인 금년도에는 잠정적으로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급사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공급사는 발전소, 송변전시설 등 자체 공급설비의 에너지效率을 改善하기 위한 투자사업은 물론 소비자의 절약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고효율 에너지사용기기 보급지원사업, 절약정보 지원사업, 에너지절약진단·조사사업, 에너지절약기술개발지원사업과 절약홍보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차별 『需要管理投資計劃』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通商産業部에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또한 '95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地域에너지計劃』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에 대한 에너지연수를 실시하며 경제사회단체와의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국민전체에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環境과 調和되는 에너지정책의 展開

에너지사용은 필연적으로 環境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에너지부문에서 환경영향을 最少化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氣候變化協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가. 氣候變化協約에 대한 對應方案 講究

기후변화협약은 地球溫暖化 방지를 위해 化石燃料 소비 및 溫室가스 배출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환경협약으로 현대문명과 경제사회발전의 기저를 형성해 온 化石에너지 주도의 세계 에너지수급체계에 일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化石에너지 의존도와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 및 경제의 각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약에는 각국이 이행해야 할 義務사항과 協力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선진국들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溫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고 개도국에 대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각국은 장기적으로 溫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溫室가스 배출현황 및 국가정책에 관한 國家報告書を 선진국은 '94년 9월까지, 개도국은 '97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협약의 최근 動向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무 강화를 위한 부속의정서 협상이 개시될 제 1차 當事國 總會(각료급 회의, '95년 3월 개최 예정)에 대비하여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중심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며 협약강화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先發開途國에 대한 배출규제의무 강화주장이 선진국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협약상으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직접적인 溫室가스 배출규제 의무는 없으나 '96년으로 예정된 OECD 가입이나 선진국들의 先發開途國 責任分擔論 주장에 따라 향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對應策으로 '97년 3월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의 草案을 금년중에 작성하고 현재 진행중인 기후변화협약 後續協商에 적극 참여하여 선발개도국에 대한 의무강화 주장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溫室가스 배출규제 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溫室가스를 低減시키기 위해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연구결과를 기초로 에너지, 산업, 농업, 임업, 폐기물 부문을 망라한 종합적 “氣候變化實踐計劃”을 수립할 예정이며 淸淨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再生에너지의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와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전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나. 代替에너지 開發 普及

에너지사용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1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3%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단계적인 開發目標을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현재는 석유가격수준이 낮아 민간부문에서 개발의욕이 저하되어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꾸준히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풍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5개 과제에 8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대체에너지 기술의 실용화·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제주 월령 대체에너지 시범단지를 금년에 준공하고 전남 하화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25kW에서 60kW로 증설하며, 鳥嶼 電化사업과 연계하여 50가구 미만의 도서지역에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代替에너지開發促進法을 實用化 普及도 장려하는 방향으로 改正할 계획이다.

6. 국내 자원의 效率的 開發 추진

수요가 감소되는 石炭은 減産을 계속 유도하는 한편 국내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에너지자원의 自給率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가. 석탄산업의 構造調整 계속 추진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호로 石炭需要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88년부터 실시해 온 폐광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548억원을 지원하여 중·소형 非經濟탄광에 대해 廢鑛을 추진하는 한편 대탄광의 감산을 유도하기 위해 '94년부터 시행한 『감산지원제도』를 금년에도 실시하여 290억원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102만6천톤의 물량을 감산할 계획

이다. 또한 경제성있는 탄광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및 발전용탄 납탄물량 배정 등 탄광에 대한 정부지원체도를 장기 가행광산 위주로 개편하여 '97년으로 예정된 국내 무연탄 시장의 개방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92년부터 '97년까지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추진중이며 금년에는 관광·휴양지 개발, 광공단지 조성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공해방지사업과 탄광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 국내자원의 효율적 개발

국내에 부존된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有望鑛種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광업권 관리체도를 개선하여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최장 25년에서 20년으로, 사업개시유예기간 및 사업휴지인가기간을 10년에서 3~6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광산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石·骨材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우수기능공을 양성하고 석재가공단지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스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내대륙봉 6-1광구의 고래 I 구조에 대해 經濟性評價를 위한 탐사를 1개공 실시할 계획이다.

7. 安全管理 강화로 사고예방 徹底

작년에 발생한 아현동 가스사고를 교훈삼아 에너지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을 源泉의으로 豫防하기 위해 安全管理체도를 補強하고 安全點檢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 安全管理制度 改善

가스사용에 따른 安全管理體制를 補強하기 위해

도시가스시설 및 기기에 대한 안전검사체도를 강화하고 無資格者에 의한 도시가스시설공사의 下都給을 禁止하며 가스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용량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범위를 국내 배전설비까지 확대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시 전기안전점검필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며 『電氣安全技術院』을 설립하여 전기안전관리 및 검사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광산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정부의 차등지원을 확대하고 『石炭産業合理化事業團』을 鑛害방지사업 전담기관으로 활용하여 폐광에 따른 지반 침하 방지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시설보강 및 안전점검 강화

우선 주요 가스공급기지 및 시설에 대해 원격감시체제와 도시가스의 환상배관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가스시설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가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大型 水火力發電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유흥업소, 시장, 상가 등 전기안전에 脆弱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변전소 인출 전력구에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정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大型 災害가 우려되는 9개 광산을 특별관리광산으로 지정하여 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관리광산 14개에 대해서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不注意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점검요원의 기술능력을 확충하고 수용가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教育·弘報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